

시민과 함께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건설



김 홍 장 | 당진시장

1962년 충남 당진 출생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정책학과 재학
1996년 제8대 충남도의회 의원
2010년 제9대 충남도의회 의원
2012년 제9대 충남도의회 행정위 위원
2014년 민선 6기 당진시장

▲ 당선소감

먼저, 민선 6기 당진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17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전국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가장 큰 도시이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도시의 시장으로 당선되니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수도권과 1시간대 거리에 위치한 당진은 전통적인 농업에서 산업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유입인구와 지역민 간의 갈등의 문제가 불어지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건립 문제, 송전선로 문제 등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상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제는 양적 성장과 함께 시민 삶의 질적 향상, 즉 행복한 변화 속에 품격 있고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드는데 전력해야 한다. 당진시민의 염원대로 당진의 좋은 기회를 희망으로 만들어 반드시 주인인 시민과 함께 당진의 대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

아울러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 오신 다른 후보님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분들을 지지하셨던 뜻을 소중히 받들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겠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당진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외부에서 인구도 활발하게 유입되는 도시인만큼 현안과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우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는 것이 최우선이다. 당진은 현재 송전선로 등 철탑 문제,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 동부화력 문제 등으로 지역 민심이 흩어져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제 모두가 당진의 구성원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통과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시민과의 소통이 부재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시민의 생각과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주여건이 미흡한 것도 시급한 문제다. 산업단지 개발, 공장 유치 등으로 외부에서 이주하는 인원은 많은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 의료, 문화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의 효율을 높이는 도시계획 재수립으로 시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침체된 전통시장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통시장, 원도심은 당진경제의 근간이자 희망이다. 당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상권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전통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광장 및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쉼터를 마련하고 주차장을 확충하여 찾아오기 편리하고 찾아오고 싶은 전통시장과 원도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환경문제다. 이제 당진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난개발 종합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친수공원 조성, 수목원 조성, 쌈지공원 조성 등 생태도시 당진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

앞으로 당면해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고루 모아 시민과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 분야별 중점 방향

저는 민선 6기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6개 분야에 대한 방향 제시로 더욱 살맛나는 당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첫 번째, 풍요로운 당진경제 조성이다. 철강도시만으로 당진이 부유해질 수 없다. 철강도시를 뛰어 넘어 항만물류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당진을 그려야 한다. 아울러 지역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당진경제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추구다.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 열린 광장 토론회를 운영하여 시민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확대하여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

세 번째, 더불어 누리는 복지 추구다.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사회 구성원 누구하나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다. 이를 위해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동자 등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네 번째,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 완성이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양육·교육 환경 조성하고 함께 시민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문을 계기로 성지순례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기지시출다리기가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항포구와 관광지를 연계한 해양레저관광을 육성하여 관광, 휴식, 레저, 체험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다섯 번째,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이다. 당진의 기름진 땅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앞으로 당진은 보전과 개발의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도심의 열섬을 해소해주는 친수 공원 조성, 수목원 조성, 곳곳에 썸지공원 조성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당진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섯 번째, 함께 잘사는 농어촌 건설이다. 농어촌은 우리의 희망이자 당진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자원이다. 3농 혁신을 통해 농어민이 주도적으로 함께 잘사는 농어촌을 그려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수출농산물 집중 육성, 도시 및 해외 등 판로 개척을 통해 농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상 분야별 중점 방향을 토대로 민선6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 열심히 나아가겠다.

▲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당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다짐하였던 것들이 저의 공약이 되었다. 미래 당진의 행복한 변화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현될 것이다.

우선 저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의 장을 만들겠다. 주민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시민과의 대화 확대, 다양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간, 행정과 시

민 간 대화와 소통을 늘려갈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진항을 동북아 중심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추진이다. 동북아 중심의 물류거점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17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

또한, 중요한 것이 8월에 오시는 교황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교황님 방문은 당진이 천주교의 메카로 세계 속의 당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 합덕성당, 솔피성지, 신리성지를 연결하는 성지순례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2020년 미래비전을 그려본다면?

현재 당진의 모습을 과거 10년 전 당진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저는 가끔 당진의 미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가깝게는 5년 후의 모습을, 멀게는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인하는 당진의 모습과 함께 행복하게 미소 짓는 시민의 모습이 그려진다.

당진은 2030 도시기본계획 속에 50만 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1,200만 평의 산업단지가 힘차게 돌아가고 당진항만의 46선석 조성 완료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쾌적한 정주여건이 확충되면 인구 유입과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희망을 갖고 시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고 했다.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본다. 2020년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당진의 희망찬 미래 모습을 꿈꿔본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당진시민 여러분! 이제 민선 6기는 '시민의 시대'로 새롭게 출발한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대, 시민의 생각과 의견이 시정으로 반영되는 시대, 시민의 작은 꿈이 큰 희망으로 피어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

또한, 시민 누구하나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드리겠다.

저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의 당진을 물려줄 것인지 늘 고민하고 있다. 동북아의 해양중심 도시, 품격 있고 균형 잡힌 아름다운 도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화와 쇄신으로 행복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